

탄생 100주년 맞는 탄허 스님의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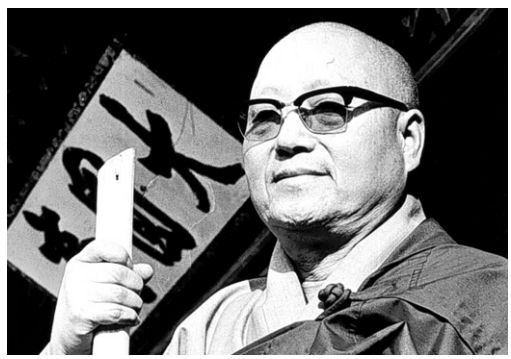
탄허 대종사 연보

탄허불교문화재단 오대산문화회 지음 | 교림 펴냄



“집안의 누(累)와 외부의 사정으로 인육(人慾)이 날로 불어나 귀는 소리에 끌려가고 눈은 빛깔에 어두워져서 마치 우산(牛山)의 나무가 도기와 연장의 토벌을 당하고 게다가 소와 염소에게 뜯어 먹힌 꼴이 되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적신다고 해도 짝이 자랄 수 없을 지경이니 그 밖에 남아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제라는 암흑시기 속에서 나라의 정체성과 해방 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계몽에 매진했던 탄허 스님(1913~1983·사진)의 연보(年譜)다.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탄허 대종사 탄생 100주년(2013)을 맞아 발간했다. 서두는 연보에 실린 것으로, 스님이 출가하기 전 20세 때 한암 스님께 보낸 서신의 일부다.



스님은 1913년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에서 태어났다. 이른 시기에 한학과 도학 등 학문에 눈뜬 스님은 오대산 한암 스님과 서신을 주고받은 뒤 1934년 22세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했다. 오대산 월정사 조실을 지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동국대 동양학연구소장이 되어 역경에 큰 공을 세웠다.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대만 등 해외에서 열린 동양학 세미나에서 화엄학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특히 대만대학교에서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여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았다. 1983년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납 71세, 법랍 49세로 입적하였다.

700쪽에 달하는 연보는 한암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해 경봉 스님에게 올린 서신, 상량문과 중창기 등의 기록문과 상원사 사적비 등의 금석문, 신문 기사, 각종 저술, 사진자료 등이 담겨 있다. 열반 후의 자료들도 별도로 묶었으며, 〈방산굴법어〉의 내용도 담겨 있다.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도(道)로 향하는 정성을 족히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 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 때에 장부의 뜻을 능히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자 하니, 속세(俗世)에 심은 선근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축하하고 축하하노라.” 앞의 서신에 대한 한암 종사의 답신이다. 700쪽의 연보 한 권이 생전의 한 순간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남겨진 후학과 당신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충분한 ‘의미’다. 박재완 기자

능엄경이 있는 곳은 정법이 있는 곳



능엄경 강설 상,하
반라밀제 번역
선화 상인 강설
정원규 편역
불광사 펴냄
8만4천원(각권 4만8천원)

“불교에는 매우 중요한 경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전은 바로 《능엄경》이다. 《능엄경》이 있는 곳은 바로 정법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능엄경》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말발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각각의 불교도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 《능엄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국 위양종 9대 조사 선화 상인(宣化上人, 1918~1995)의 능엄경 강설이다.

《능엄경》은 705년 당나라 때 반라밀제가 한역한 것으로, 갖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고 줄여서 《수능엄경》, 《능엄경》 등으로 부른다. 총 10권으로 되어있는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경전이다. 인도의 나라마다에서 비장(秘藏)하고 있으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하여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해지지 않다가 705년 중인도 스님 반라밀제가 가지고 와서 한역했다. 이 경의 가르침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가르침의 폭은 대, 소승의 현교 뿐 아니라 밀교사상까지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

정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밀교 쪽보다는 선가에서 환영을 받아 주석자들 대부분은 선가의 스님이었다. 불교의 대(大), 소(小), 현(顯), 밀(密)을 두루 갖추어서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엄경》은 선불교의 소의 경전 가운데 하나이자 한국불교의 근본정신 가운데 한이기도 하다. 그런 중요성으로 인해서 한글 창제 후 첫 번째로 번역된 불교 경

전이기도 하다. 제1권에서는 칠처정심(七處徵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부처님이 제자 아난과의 문답을 통해 마음을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밝힌다. 몸 안, 몸 밖, 감각 기관, 어둠으로 감춰진 곳, 생각이 미치는 곳, 감각기관과 대상의 중간 지점, 집착하지 않는 곳 등 일곱 장소를 들면서 마음이 있는 곳을 물었으나, 부처님께서서는 그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님을

25원통이다.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증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의 능문(能聞)의 수행문임을 설한다. 제7권에서는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다. 제8권에서는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로 57위(位)를 설한 뒤 경의 다섯 가지 이름을 밝히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신선, 천인, 아수라라는 일곱 갈래의 증생이 생겨난 원인과 그 각각의 생존양상을 설명했다. 제9권에서는 말세에 중생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관해서 그 원인과 종류를 밝혔으며, 제10권에서는 공덕과 유통에 관하여 부연하는 것으로 맺는다.



대불정수능엄경 권 2~4, 권 6~10. 보물 7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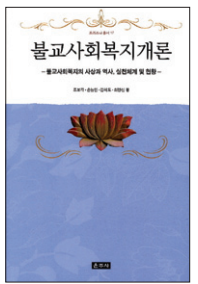
고, 중생들이 미혹하게 된 원인과 얻을 지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3, 4권은 여래장 사상의 발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풀어야 할 근원적인 업의 매듭은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 등이며, 이를 풀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인연을 범회에 참석한 제자들이 각각 체험담으로 진술한 것이 이른바

임제종, 조동종, 위양종, 범안종, 운문종 등 선가 5종의 법맥을 이은 허운 선사(虛雲, 1840~1959)의 제자 선화 상인은 10권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을 내용별로 23개의 부로 나누어, 어렵고 복잡한 구절을 명쾌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번 선화 상인의 《능엄경 강설》은 196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불교강당에서 “능엄경 하계연수반”을 열어 96일간 강의한 것을 정리한 9권의 《선화 상인 해설 능엄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원본의 내용이 방대하여 중요한 강설만 따로 추려서 2권 1집으로 엮었다. 처음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를 묶은 것이어서 상인의 꼼꼼하고 자상한 해설은 전문수행자가 아니라도 《능엄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참선 수행과 함께 이루어진 경전 강의 덕분에 중국불교의 실제 신행 생활과 수행 가풍을 엿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불교+사회복지=불교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손승인, 김태도, 최영신 저 | 운주사 펴냄 | 21만 원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가족 부양 의식의 약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개인적 이기주의 팽배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 속에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책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폭넓은 영역의 이해를 통하여 불교사회복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불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대상부터 불교사회복지의 과제까지 살펴본다.

불교계는 종단 산하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동안 개별적 관심 수준에서 진행되던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들이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폭넓은 영역의 이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책은 총 여덟 개의 장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종교와 사회복지가 만나 종교사회복지가 성립된 배경, 개념과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교의 본질에 입각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을 자비, 평등, 연기, 생명존중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들의 핵심에 부처님의 자비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서 보살 사상과 보살도로서의 보시행과 복전 사상, 윤회사상과 사회봉사, 보은사상과 복지활동 등을 제시하면서 사설법, 사무량심, 육화경, 대기설법 등 그 밖의 불교사회복지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회복지를 비교했다. 제5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전달하는 근거가 되는 체계를 법 규정과 전달체제로 나누어 고찰했다. 제6장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교정, 의료, 지역복지와 자원봉사 등 적용분야별로 그 개념과 현황, 그리고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와 사찰 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의 당위성과 현황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궁극적 목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은 불교사회복지의 전반에 걸쳐 그 개념과 사상, 원리와 역사적 발달과정, 실천체계와 각 분야론, 현 실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 개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10/9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2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만덕, 만현 | 한지공헌자 |
| 3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크스 |
| 4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5 | 영원에서 영원으로 | 불필 | 김영사 |
| 6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출판 |
| 7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 공감 |
| 8 | 김치나무에 핀 행복 | 일운 | 담연북스 |
| 9 | 백일법문 | 상철 | 정경각 |
| 10 |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 | 정원규 | 불광출판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용정책책을 하여 360°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매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라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명 053-02-109450 (메카주. 윤재승)